

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	2022. 4. 26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농업기술원	보도자료 PRESS RELEASE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성배	☎ 760-7601
		업무담당자	김정우	☎ 760-7634
		홍보담당자	고희열	☎ 760-7512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콩 파종방법 개선 변덕스런 이상기후 대응

- 콩 파종기 이용 습해 방지 및 수량성 향상 ... 산파 → 줄 파종으로 -
- 동부센터, 올해 사업비 1억 8,000만 원 투입 콩 파종기 25대 지원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성배)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나물용 콩 습해방지 및 수량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.
- 동부지역은 나물용 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은 1,918ha에 달한다 (2021년 제주 동부지역).
- 나물용 콩은 주로 6월에 산파(종자를 흩어서 뿌림)를 하는데, 지난 해인 경우 파종 후 가을장마로 인한 잦은 비날씨로 콩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였고 꼬투리가 충실하지 못하여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.
- 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종방법을 개선하여 이상기후에도 입모율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 - 산파 후 로타리를 칠 경우 이랑과 고랑이 적절하게 생기지 않아 습해 발생 우려가 있고 입모가 불량해졌을 경우 수량이 떨어지는데 지난해처럼 기상이 나쁜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. 또한 밀식되어 도복을 유발하고 수확 시 어려움이 많은 단점이 있다.
-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산파에서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

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파종방법을 개선하여 습해 예방 및 수량 증대에 나선다.

- 올해 사업비 1억 8,000만 원을 투입해 트랙터 부착용 콩파종기를 25대 지원한다.
 - 지난 3월 시범농가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사회를 개최하여 동부지역에 맞는 다양한 기종을 선보였으며, 늦어도 5월 중 파종기 2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번 사업은 기존 콩 산파 재배에서 기계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재식거리를 조절하여 밀식장해를 해결하며 수확 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- 또한 콩 재배 시 문제가 되는 습해를 예방하며, 관행 대비 30% 이상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김정우 농촌지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‘콩 줄 파종에 의한 습해 예방으로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’ 며 ‘관내 콩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’ 고 말했다.



콩파종기 시범사업 연사회

제주신문: 2022년 03월 14일



동부농기센터 콩 파종기 기종 선택 연사회

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성배)는 지난 11일 센터 전시포에서 시범사업 대상자 및 관내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콩 파종기 기종 선택 연사회'를 개최했다. 이번 연사회는 파종기 3종에 대한 현장시연을 거쳐 기종별 장단점 파악 및 의견 정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.

제주신문 8

제주매일: 2022년 03월 15일



동부농업기술센터, 콩파종기 선택 시연회

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성배)는 최근 시범사업자 및 관내농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콩 파종기 기종 선택 연사회'를 개최했다.

제주매일 12

콩 파종법 개선...이상기후 대응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성배)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나물용 콩 습해 방지와 수량 향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.

동부지역은 나물용 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918ha이다.

나물용 콩은 주로 6월에 산파를 하는데, 지난해는 파종 후 가을장마로 인한 잦은 비닐째로 못자람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.

이에 센터는 기존 산파에서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파종 방법을 개선한다.

올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트랙터 부착용 콩파종기를 25대 지원한다.

지난달 시범농가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시회를 개최해 동부지역에 맞는 다양한 기종을 선보였으며, 다음 달 중 파종기 2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.

김지우 기자 jibregas@jjuiboo.net
뉴제주일보 6

콩 재배방법 개선 '이상기후' 대응 나선다

동부농기술센터, 줄파종 방식 도입

파종기 25대 지원 습해 예방 기대

제주도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나물용 콩 생산량 저하에 대응, 습해방지과 생산량 향상에 나선다.

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6일 나물용 콩 파종방법을 개선하고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다음달중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 2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동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동부지역은 나물용 콩 주산지로 지난해 기준 총 재배면적은 1918ha 수준이다.

나물용 콩은 주로 6월에 종자를 흙에서 뿌리는 방식(산파)으로 파종하고 있다.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파종 후 가을장마로 인해 잦은 비닐째가 이어져 못자람 현상이 발생하고 꼬투리가 충실하지 못해 생산량이 감소했다.

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산파에서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를 이용한 줄 파종방법으로 개선, 습해 예방 및 수량 증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

기존 콩 산파 재배와 달리 기계를 이용한 줄 파종을 활용할 경우 재식거리를 조정해 밀식장해를 해결하고 수확시에도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.

앞서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시범농가 20여곳을 대상으로 연시회를 개최했으며 다음달 파종기 25대를 추가 지원한다.

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콩 재배시 문제가 되는 습해를 예방하고 기존 재배 방식 대비 생산량을 30% 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김수환 기자
제민일보 2

한국농정: 2022년 05월 10일

제주도, 나물용 콩 파종 개선으로 이상기후 대응

콩 파종기 이용한 줄 파종, 습해 방지 및 수량향상 기대
동부농기센터, 올해 1억8천만원 들여 파종기 25대 지원

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파종방법 개선으로 나물용 콩 습해 방지 및 수량향상에 나설 방침이다.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제공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성배)가 파종방법 개선으로 나물용 콩 습해 방지 및 수량향상에 나선다.

동부농기센터에 따르면 제주도 동부지역은 나물용 콩 주산지로, 2021년 기준 재배면적이 1,918ha에 달한다. 나물용 콩의 경우 주로 6월에 종자를 흩어

서 뿌리는데(산파), 지난해에는 파종 이후 가을장마로 웃자람이 발생했으며 꼬투리가 충실하지 못해 생산량 또한 현저하게 떨어졌다.

이에 동부농기센터는 파종방법을 기존 산파에서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개선해 이상기후에도 임모율(씨가 나는 비율)을 확보

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. 당초 산파 후 토더리를 칠 경우 이랑과 고랑이 적절하게 생기지 않아 습해 발생 우려가 있고, 일모가 불량해져 수량이 떨어지게 된다. 아울러 지난해처럼 기상이 나쁠 때엔 그 피해가 더욱 큰 단점이 있다. 이밖에 밀식으로 인한 쓰러짐과 수확 시 어려움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. 하지만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로 줄 파종할 경우 습해를 예방할 수 있고, 관행 대비 수량도 3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또 재식거리가 조절돼 밀식 장해를 해결하고 수확 시의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.

동부농기센터는 지난 3월 20개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연시회를 개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종을 선보였으며 올해 사업비 1억8,000만원을 들여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 25대를 5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.

김정우 동부농기센터 농촌지도사는 “줄 파종에 의한 습해 예방으로 나물용 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관내 콩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국농정 11(22.5.2)정수지 기자

한국농기계신문: 2022년 05월 17일

콩 파종방법 개선으로 이상기후 대응

제주동부센터, 콩 파종기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성배)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나물용 콩 습해방지 및 수량향상에 나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.

동부지역은 나물용 콩 주산지로 재배면적은 1,918ha에 달한다(2021년 제주 동부지역).

나물용 콩은 주로 6월에 산파(종자를 흩어서 뿌림)를 하는데, 지난해 파종 후 가을장마로 인한 잦은 강우로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였고 꼬투리가 충실하지 못해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.

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산파에서 트랙터 부착용 콩 파종기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파종방법을 개선해 습해 예방 및 수량 증대에 나선다. 올해 사업비 1억8,000만 원을 투입해 트랙터 부착용 콩파종기를 25대 지원한다.

이번 사업은 기존 콩 산파 재배에서 기계를 이용한 줄 파종으로 재식거리를 조절해 밀식장해를 해결하며



수확 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또한 콩 재배 시 문제가 되는 습해를 예방하며, 관행 대비 30% 이상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김정우 농촌지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“콩 줄 파종에 의한 습해 예방으로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관내 콩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국농기계신문 2(22.4.30.)